

광양항 14만급 마리너호 첫 입항...중국인 4000명 전남 관광 ▶관련기사 3면



아시아 최대 규모(14만급)의 초대형 유람선인 로열 캐리비안 마리너호가 30일 광양컨테이너부두에 정박해 있다. 유람선에 탑승한 4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순천·여수·보성·남해 등 전남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하선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크루즈시대 열렸다

버스 100대 나눠타고 여수·순천·보성 둘러봐 경관·음식·친절 호평...지역특화 인프라 절실

지난 30일 오전 14만급 대형 크루즈선인 로열 캐리비안 마리너호(Royal Caribbean Mariner of the seas·이하 마리너호)가 정박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100대의 45인승 관광버스가 줄지어 들어섰다. 전남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광양항에 도착한 4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순천정원박람회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보성 녹차밭 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들이었다. 대부분 중국에서 온 이들은 '대장급'과 같은 드라마나 '슈퍼주니어' 등 한류음악을 통해 한국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배에서 내려 가이든나 운전기사에게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네며

웃는 이도 적지 않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순천으로 향한 1000여명의 관광객들은 먼저 낙안읍성을 찾았다. 미리 낙안읍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던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을 인솔하며 관아와 초가, 성벽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낙안읍성 내 대장급 촬영지에 놓인 배우 이영애씨를 알아보는 관광객도 적지 않아 한류의 위력이 새삼 느껴지기도 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찾은 관광객들은 순천 호수정원에 시선을 빼앗겼다. 호수 위에 떠 있는 호수마운틴(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직접 올라가 보는가 하면, 지도를 든 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정원들을 직접 찾아가보는 관광객도 많았다. 곳곳에 캠프터

와 휴대전화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음 짓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박람회장이 활기를 띠기도 했다. 박람회장 못지 않게 음식점도 인기였다. 이들은 특히 야채 비빔밥이나 불고기덮밥, 우동 등 맵지 않은 음식을 주로 찾았다. 음식을 입에 넣은 채 '하오츠(맛있다)'를 외치고, 서로 주문한 음식을 바꿔 먹는 관광객도 곳곳에 보여 '남도 음식'의 지력을 실감케 했다. 상하이에서 가족과 함께 마리너호를 탔다는 시밍 그(여·50)씨는 "날씨도 좋고, 박람회장 내부가 깨끗해서 나도 모르게 천천히 걸게 되더라"며 "홍보만 잘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끌만한 전남만의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녹차밭이 유명한 보성은 상하이 인근 절강성이 녹차 산지라는 점에서 이미 대

규모의 녹차밭을 접해 본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상하이세계박람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관광객도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조대해 여행 가이드는 "똑같은 여행지여도 그 지역의 '문화'를 관광객이 알게 되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며 "중국 등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 가이드들이 관광지에 있다면 전남의 관광 자원에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로열 캐리비안 마리너호=중량 13만8270t, 길이 311m, 폭 48m, 높이 69m, 객실 수만 1557실에 달하는 대형 크루즈선. 승무원 1185명, 승객 3840명을 실을 수 있고 10개의 수영장, 카지노, 도서관,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설치된 '바다 위의 리조트'로 불린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확산

광주 진보단체 3000여명 결의대회·새누리 광주시장 항의방문 교수·종교계서 고교생까지 시국선언...전국 곳곳서 촛불집회

광주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국가정 보원의 선거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유출 사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시민단체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전남대와 광주대 교수 등 학계와 종교단체, 심지어 고교생들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진보연대와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원 3000여명은 지난 30일 오전 광주역에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광주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이후 새누리당 광주시당을 항의방문한 뒤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정원 해체' '일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며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까지 행진했다. 전남대 교수와 광주대 교수들도 국정원 선거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유출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최영태 사학과 교수는 동료 교수 1100여 명에게 시국선언 참여 의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시국선언 제안자는 최 교수를 비롯한 전남대 교수 15명이며, 이들은 1일까지 답장 메일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교수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탄하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국회 국정조사를 피하고 회색시각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대학교 교원진 교수협의회장은 "이들은 결의대회 이후 새누리당 광주시당을 항의방문한 뒤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정원 해체' '일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며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까지 행진했다. 전남대 교수와 광주대 교수들도 국정원 선거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유출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구 삼복서점 앞에서는 광주·전남 진보단체, 시민단체, 노조, 학생,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촛불 문화제'를 열고 국정원 규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 집회는 대구와 대전 등에서도 열렸다. 또한 금산 간디학교·산마을 고등학교·산청 간디학교 등 3개 대한학교 학생회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등학생들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대한학교 학생회는 학교별로 학생총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시국선언문 발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프랑스 등지의 일부 재외동포들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성명·시국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국정조사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을 첫 폭염주의보 내일부터 장마전선 동·번개 동반 비

지난 주말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처음 발표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오는 2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곡성·구례·화순 등 전남 내륙 3개 군에 폭염주의

보가 발표됐다. 이 날 화순 최고기온은 33.1도까지 올라갔다. 30일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의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8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일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신대학교
입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간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전국과 지우 © 1983 Toho Co., Ltd.

들개 野良犬 1949
조용한 결투 静かなる決闘 1949
추문 醜聞 1950
라쇼몽 羅生門 1950
백치 白痴 1951
이키루 生きる 1952
7인의 사무라이 七人の侍 1954
거미집의 성 蜘蛛巢城 1957
숲은 요새의 세 악인 隠し砦の三悪人 1958
요짐보 用心棒 1961
쓰바키 산주로 椿三十郎 1962
천국과 지옥 天国と地獄 1963
붉은 수염 赤ひげ 1965
마다다요 まあだだよ 1993

7.13~14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
가가와 고코 특별 초청

7.13~7.20 광주극장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

광주시내아트센터 광주일보 일본국제교류기금 후원 KTOIC 영화진흥위원회 주관광주국제영화제 공모문화대전 (원천) 롯데제과(주)
문의 | 광주극장 cafe.naver.com/cinemagwangju 062-224-5858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www.jpj.or.kr 02-397-2828